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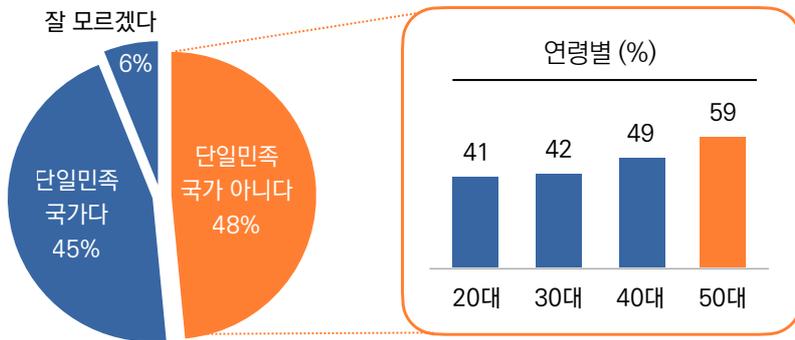
한국의 저출산 문제에서 시작되는 지방 소멸 문제,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등은 필연적으로 국내 외국인 이민자 유입의 필요성을 불러오게 된다. 최근 한국갤럽이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소개한다.



## 우리국민 2명 중 1명, ‘한국은 단일민족 아니다’!

- ▶ 우리국민은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국가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? 전체 응답자(19~59세)의 45%는 ‘단일민족 국가’라고 보았고, 48%는 ‘그렇지 않다’고 응답해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는 견해가 3%p 더 높았다.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‘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’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.

[그림] 우리나라의 단일민족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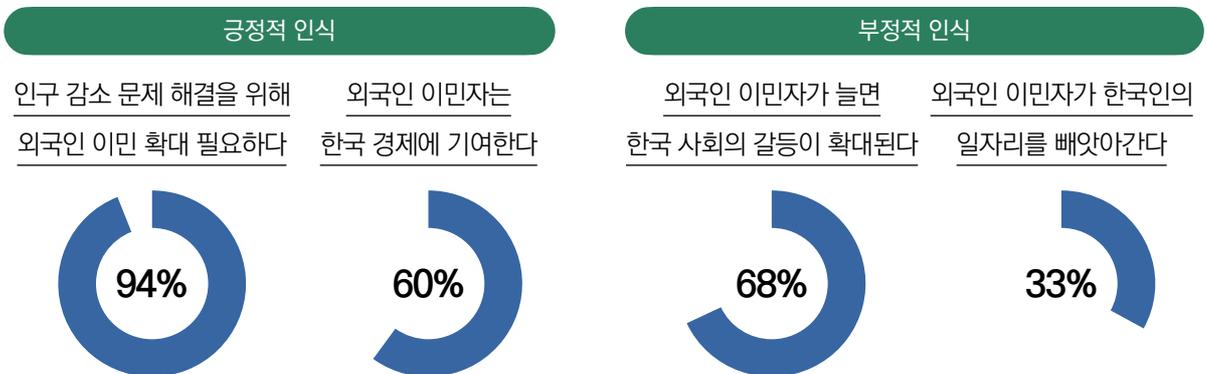


\*자료 출처 : 한국갤럽, 결혼과 양육 관련 인식(3)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생각, 2023.05.11. (전국 만 19~59세 1,202명, 모바일조사, 2022.08.12.~22) (<https://www.gallup.co.kr/gallupdb/reportContent.asp?seqNo=1391#D>)

## ◎ ‘외국인 이민 확대 필요’에 대다수 동의하나, ‘사회 갈등 확대’ 우려 의견도 높아!

- ▶ 외국인 이민자와 관련된 여러 주장을 제시하고, 이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었다. ‘외국인 이민 확대 필요성’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는 입장(동의율 94%)이었고, ‘이민자의 경제 기여’ 의견에도 10명 중 6명은 ‘동의한다’라고 응답해 비교적 긍정적인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.
- ▶ 한편 ‘외국인 이민자가 늘면 한국 사회 갈등이 확대된다’에 68%, ‘외국인 이민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’에 대해서도 3명 중 1명꼴로 동의해 외국인 이민자 유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.

[그림] 외국인 이민자 관련 인식 (‘동의한다’ 비율, %)



\*자료 출처 : 한국갤럽, 결혼과 양육 관련 인식(3)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생각, 2023.05.11. (전국 만 19~59세 1,202명, 모바일조사, 2022.08.12.~22) (<https://www.gallup.co.kr/gallupdb/reportContent.asp?seqNo=1391#D>)